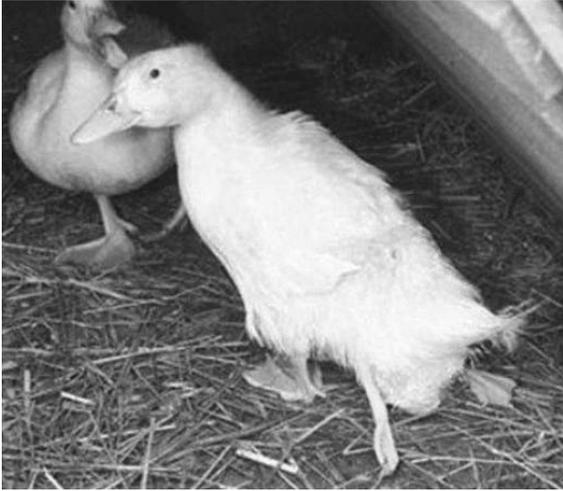


영국, 다리 4개 오리 발견돼 '눈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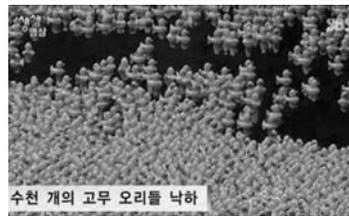
출처 : 뉴스웨이



영국 일간지 메트로 지난 9월 2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한 농장에서 태어난 다리 4개 오리가 발견됐다. 이 오리는 평범한 다른 오리들과 달리 몸집이 약간 더 크고 다리가 4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리 4개 오리 주인은 “부화하자마자 다리가 4개인 것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 특이한 외모 때문에 자라면서 다른 오리들과 친해지지 못했으나 현재는 다른 오리들과 어울리며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잘크고 있음을 밝혔다. 덧붙여 “원래는 다리 4개 오리를 팔려고 했지만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 오리라는 생각이 들어 애완견처럼 집에서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다리 4개 오리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거 돌연변이네”, “이상해~ 이상한게 자꾸 발견돼”, “영국도 신기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국, 짹짹! 고무 오리 경주 대회 수천 개의 고무 오리들이 레이스를 펼쳐졌다.

출처 : SBS 뉴미디어부



수천 개의 고무 오리들을 낙하



강을 따라 펼쳐지는 '고무 오리 경주 대회'



강을 따라 펼쳐지는 '고무 오리 경주 대회'

지난 10월 16일(현지시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컴벌랜드에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고무 오리 경주 대회'가 수천 개의 노란색 고무 오리들과 함께 열렸다. 참가자들이 미리 구입한 고무 재질의 아기 오리 수천 개가 강으로 쏟아지고, 열렬한 응원과 함께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 경기에 출전한 오리 인형들은 개당 5달러, 우리 돈 6천 원 정도에 판매되는데, 수천 마리나 되다 보니 수익금도 적지 않다. 이렇게 모인 수익금 일부는 자선 목적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중국, 고무로 만든 가짜 오리알 유통

출처 : 머니투데이



중국 하얼빈시에서 고무로 만든 '가짜 오리알'의 유통

사실이 적발됐다고 중국 동북망이 10월 23일 보도했다. 보도에서 한 주부는 지난 10월 19일 하얼빈 시장에서 1위안짜리 오리알 20개를 구입해 삶았는데 고무 타는 냄새와 함께 진흙물이 됐다고 전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부는 오리알을 탁자에 던졌고 오리알이 고무공 처럼 튀어 올랐다고 설명했다.

동북망은 해당 오리알은 영양성분은 전혀 없는 화학원료로 만든 것이며 가짜 오리알을 만드는 제조법이 인터넷에 상세히 유포됐다고 밝혔다.

유포된 가짜 오리알 제조법에 따르면 알긴산나트륨과 명반, 젤라틴, 식용염화칼슘, 색소 등을 이용해 흰자를 만들고 레몬색 색소, 염화칼슘을 섞어 노른자를 만든다. 이후 계란 모양 틀에 넣어 굳히면 오리알의 형태가 된다고 설명돼 있다.

